

무용창작 교육의 개인적 지능 구성요소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박순호** · 김나이***

I. 서론	V. 결론 및 논의
II. 하워드 가드너의 개인적 지능	참고문헌
III. 연구 방법	Abstract
IV. 무용창작 교육의 개인적 지능 구성요소	

I. 서론

그동안 무용예술 교육은 예술적(professional) 측면과 교육적(educational)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학생들이 움직이고 느끼는 존재로서 창의력, 상상력, 개별성에 관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왔으며, 필요/균형 조건으로서 무용예술 양식(樣式)에 대한 지식 중 신체 기술을 강조해 왔다(Autard, 2017). 또한, 무용 교육내용으로서 기능(technique)에 관련하여 예술적 목적의 성취(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1980)와 예술성 안에서 창의성에 관련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김나이, 2020a, 2016b). 그러나 신체 훈련 측면에서 그 편향성이 높은 무용 교육 형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신체 훈련에만 매진할 뿐 창의적 활동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었다(Autard, 2017).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작품을 만들고, 개인적 특징을 발달하고, 역사·문화를 연결 짓고, 움직임 기술을 훈련하는 등 다층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적 성취 중 하나는 무용을 통해 표현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모든 예술교육이 수행하려고 하는 가장 원초적 기능(function)이기 때문이다(Autard, 2017). 그렇다면 그 균형점을 위해 본연적인 “표현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현(表現)이란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나 몸짓, 음악, 그림 등의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국립국어원, 2022). 그러한 성향이나 특성을 표현성(expressivity)이라 말한다. 칼슨과 해트필드(Carlson & Hatfield, 1992)는 표현성을 한 개인의 고유한 감정에 기반한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으로 반응·유발되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감정이나 정서는 세계를 경험하고 생성되는 최초의 지각(perception)작용으로, 이는 명제적 지식에 동화되고 녹아 들어가 개념이 형성되는 인지적 활동이다(Langer, 1979;

* 본 연구는 2021학년도 박순호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nayekim@skku.edu

Nauta, 1971; Reid, 1981).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표현성은 주체적인 개성의 표출이자 타인과 구분 짓게 하는 본질적 성향이다. 그렇다면 무용창작 교육의 표현성은 개인의 고유한 감정, 감수성 등을 길러 쌓는 정서표현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 신체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술이 없다면 사고와 감정은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사고와 감정이 없는 기술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개인의 성향과 선호에 따라 한 측면의 발달이 더 치우칠 수는 있겠지만, 무용창작 교육이 공공성을 띤 예술 양식으로서 학생들에게 이 두 가지 차원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용창작 교육은 첫째, 학생들이 풍부한 질적 세계를 경험하고 느끼고 내면을 탐색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무용창작 교육에 대한 본래적 의미이다. 그러한 상호작용의 균형이 학생들의 의식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확장하는데 필요조건이 된다. 둘째, 무용창작 교육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인식과 표현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 행위로 이는 곧 “앎의 의미”한다(최의창, 2011).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앎이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재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타인·문화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구하는 존재로, 소통의 기반 위에 앎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라반(R. Laban), 험프리(D. Humphrey), 오타드(J. M. Autard)는 무용창작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였다. 무용창작 교육의 개념적 근거와 실천적 방안에 대한 교육 모형을 정립하여 무용창작 교육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모형은 모두 개인 내적 측면(감정)과 외적 측면(표현) 간에 상호작용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김경희, 2020; Autard, 2004; Humphrey, 1999). 하지만, 내적 측면의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다중지능 이론(multiple intelligence theory)의 개인적 지능(personal intelligences)은 인간 내적 측면의 본질을 탐색하는 데 있어 이론적 틀을 제안한다. 개인적 지능은 그 발달에 있어서 핵심을 “감정”의 영역에 두고 있으며 인간 내적 측면의 발달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Gardner, 2016). 또한, 구체적인 교육학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사고영역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안무가 및 무용창작 교육자의 체험적 조사를 근거로 안무가의 사고, 무용창작의 특성, 교육방식을 살펴보고 그 내적 측면의 본질을 탐색하여 무용창작 교육의 개인적 지능은 무엇이고, 이러한 지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하워드 가드너의 개인적 지능

가드너(2016)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 능력에 관한 연구 결과물로서 ‘다중지능 이론(multiple intelligences)’을 창시하였다. 인간은 모두 여덟 개의 지능(자기이해 지능, 대인관계 지능, 음악지능, 공간 지능, 신체 운동지능, 논리수학 지능, 언어지능, 자연친화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러한 지능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산물을 창조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 심리학적인 잠재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중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 가능성을 좌우하고 개인의 자아 성장과 관련한 지능은 ‘자기이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이다(Gardner, 2016). 이 두 지능을 일컬어 ‘개인적 지능(personal intelligences)’이라 한다. 개인적 지능의 영역은 인간 본성의 두 측면으로, 인간 내적 측면의 발달과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개인적 지능은 자신이 갖게 되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인식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 행동, 의도를 인식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느냐와 관련한다.

자기이해 지능은 다층적인 정서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의 경험은 개인 내적 지식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본인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립체로서 발견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자신의 감정을 구별하고 안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독립된 개인이라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 등 내적인 자아와 관련된 지능이다. 이렇게 개인의 자아감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계속 수정되고 성장하며 정서, 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발달한 지능은 감정에 대해 자기 성찰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소설가, 예술가, 철학자 또 공동체의 구성원을 이끌기 위해 자신의 풍부한 내적 경험을 사용하는 성숙한 성인들에게서 이러한 지능의 특성이 나타난다(문용린, 2001). 이렇게 개인의 자아감은 계속 수정되고 성장하며 개인과 타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인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기분, 의도, 동기 등을 식별·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치가, 상담가, 종교지도자, 영업 등의 직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지능의 특성이 나타난다. 상대방의 타고난 기질을 헤아릴 수 있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집단 내에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문용린, 2001). 인간 삶 전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중요한 지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가드너는 “개인적 지능의 특질을 간과한다면 개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불완전한 관점을 낳고 많은 문화의 목표를 이해하고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저해한다”라고 말하였다(Gardner, 2016, p. 474). 이는 개인적 지능의 본질이 표현양식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태어나 그 안에 축적된, 작동되는 방식인 문화 자양분을 통해 성장한다. 또한, 끊임없이 문화적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을 통해 재창조한다. 숫자, 몸짓, 음악, 그림 등과 같이 탁월한 표현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지능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Gardner, 2016). 만약, 문화를 통해 공급받은 표현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초보 단계에 있는 감정적 식별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정보를 통합하거나 조직할 수 있는 인지적 틀을 갖추게 된다면 한 개인과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폭넓은 경험·지식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지능은 문화의 다양한 표현양식을 통해 추상적 지식, 지각적 심상, 개념형성, 정서적 성질 등에 관한 정보를 등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무용창작자의 체험적 경험을 통해 무용창작 사고의 유형 및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중지능 이론의 적용·해석을 통해 무용창작 교육에서 개인적 지능에 대한 관련성을 탐색하여 무용창작 교육에 있어서 개인적 지능 및 그 내용을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다년간 무용 현장에서 창작작업 및 교육 경험을 축적한 창작자들의 경험적 본질을 토대로 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van Manen, 1990)의 논리와 기법을 적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하

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 체험(lived experience)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한다(Creswell, 2013). 또 현상학적 유형 중 해석학적 현상학은 체험(현상학)의 의미에 대해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해석학)으로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체험의 특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주제들을 반성하는 해석과정을 의미한다(Creswell, 2013). 이는 창작자들이 체험한 특성 및 그것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주제를 파악하여 무용창작 교육에 있어서 개인적 지능 및 지식체계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기 위함이다. 연구 기간은 2020년 4월 진행된 연구계획 수립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3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수행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심층면담을 위해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기준, 본질, 목적에 부합하면서 연구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Goetz & LeCompte, 1984) 중 명성적 사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윤리에 관한 APA 기준(2010)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가상의 이름” 혹은 “가명 쓰기”를 통해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였다(Creswell, 2013). 이에 따라 최종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현대 무용 및 무용창작 분야의 경력이 15년, 교수 경력 5년 이상인 10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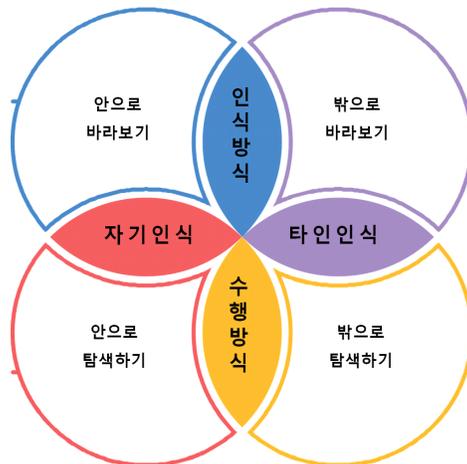
연구참여 창작자	전공	창작경력	교육경력
국천사	현대무용	29년	29년
노일상	현대무용	24년	18년
유평생	현대무용	50년	40년
박정서	현대무용	20년	18년
안관습	현대무용	35년	30년
윤반사	현대무용	22년	15년
이우정	현대무용	25년	21년
이바른	현대무용	18년	15년
홍유쾌	현대무용	23년	20년
황진정	현대무용	18년	16년

본 연구의 주된 자료수집은 문헌분석 및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약 3주간에 걸쳐 각 1회 180분 정도 소요되었다. 무용창작 교육에 있어서 개인적 지능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자들의 창작 경험, 무용창작 교육 경험, 창작의 의미와 가치, 개인적 지능에 대한 인식, 관점 등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Moustakas, 1994).

전사 과정을 통해 출처(예비조사 참여자: OEQ, 심층 참여자: I, 대상, 날짜)를 부호화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하여 무스타카스(Moustakas, 1994)가 제시한 ‘의미 있는 진술’, ‘문장’, ‘인용문’을 강조하는 수평화(horizontalization) 단계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하는 작업을 통해 의미군(cluster of meanings) 또는 주제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무용창작 교육에 있어서 개인적 지능에 대한 관련성을 탐색하는 과정은 귀납적 범주 분석에 따라 무용창작 교육의 개인적 지능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세분화하였다. 연구 자료의 가치 본질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바(Guba, 1990)가 제시한 ‘삼각검증법’, ‘연구참여자 검토’, ‘동료 간의 합의’를 통해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절차적, 해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IV. 무용창작 교육의 개인적 지능 구성요소

무용창작 교육의 개인적 지능 구성 요소는 학생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어 무용창작 교육의 표현성 함양을 위한 포괄적인 목표와 그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 이는 개인·타인, 인식·수행, 내적·외적 간의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인식하려는 것과 그 균형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무용창작 교육의 구성 요소는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그리고 ‘인식하기’와 ‘수행하기’ 차원으로 도출하였다(그림 1). 하나의 차원은 개인의 내부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타인·사회의 외부로 향하는 인식(認識) 작용을 의미한다. 또 다른 차원은 내·외적으로 발견(發見)하기 위한 인식방식과 내·외적으로 발현(發現)하기 위한 수행(遂行)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림 2〉 무용창작의 구성요소

www.kcf.go.kr

1. 안으로 바라보기

가. 자기 정서의 발견

자기 정서의 발견이란 감각-지각 활동으로, 대상의 관찰하고 자신의 정서나 감정, 행동, 말 등을 지각하고 인식하며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끄는 능력이다. 소위 느낀다(感)는 것은 욕구, 기분, 태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서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일상의 활동에서부터 창작활동에 이르기까지 관찰하고 감정 체험을 통해 ‘자신’과 ‘표현’의 힘을 깨달아가게 된다.

창작이란 나만의 생각들, 나만의 어떤 독특함, 나만의 관점들에 집중해야지 가능한 것이 과정이다....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지, 자기 자신에게 깊숙이 들어가서 자신의 감정 상태.... 그 순간에 오감이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나와야지만 가능하다.

(이바른/ 20210224)

내가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무용창작이라고 하다면, 그 재료들은 내 몸,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느끼는 감각이다. 나의 상태, 내가 지금 느끼는 것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의 지점이다.

(국천사/ 20210217)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창작 및 창작교육에 있어 중요한 점으로 관찰, 다양한 경험, 나만의 관점, 자기감정/느낌 등을 언급하였다. 창작 교육의 특성상 관찰, 자신만의 정서나 감정, 그것을 알아가고 내적 지식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본연적이다. 오타드(Autard, 2017)는 이러한 심미적 교육(aesthetic education)이 본질적으로 감정교육이라 말하고, 관찰과 감정 체험을 강조하였다. 관찰학습의 핵심은 바로 대상물 자체에 들어있다. 바로 인식하는 이가 그 체험에 가지고 오는 느낌과 이해의 깊이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오감을 통한 지각과 감정은 인간 내적 측면 발달을 위한 핵심이 된다(Gardner, 2016). 학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대상을 창작의 수단으로 재인식할 수 있고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창작에 대한 이해는 확장된다.

나. 내적 시선의 발견

내적 시선의 발견이란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관념이나 이미지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동기부여(motivation)를 획득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생성하고, 자기 확신을 통해 그것을 지속하려는 마음가짐이다. 학생들에게 무용창작 활동은 확실하지 않은 대상에 관해 탐구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자신이 경험한 질적인 측면과



〈그림 3〉 무용창작 구성요소 중 ‘안으로 바라보기’

자신의 정서를 의식적으로 되돌아보고 탐색하고자 할 때 의미 있는 관점을 찾게 되고 그것은 곧 자기 확신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에게 안무란 스스로 성찰하고 사유하면서 발견해야 한다. 온전히 나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고, 내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들, 감각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윤반사/ 20210217)

동기부여는 나의 작업에 100%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지함, 집요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시간을 오래 두고 생각을 하면서 숙성 시켜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때 생성되었던 그리고 느꼈던 감정이나 나만의 기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이 차를 마셔도 나만의 어떤 기분, 어떤 향, 어떤 색깔, 이러한 것처럼 기호적인 면들이 작품에 투영이 되어서 질적인 측면에 관여하게 된다.

(이바른/ 20210224)

감정으로부터 생성된 동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로서 창작수행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또 작품의 내용과 방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명료하고 체계화된 논리를 구축하며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사유란 미적으로 자신만의 개념·판단·추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나 시각적 이미지 등 그 가능성에 대해 상상하고, 기술적으로 유추하고, 질문을 생성하고, 그것을 지속하며 자신만의 관점을 획득하게 된다. 자기 동기화(self-motivation)는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서적 경향으로 어떤 문제의 상황과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려는 마음이다. 즉 목표에 대해 감정들을 집결시키는 것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Goleman,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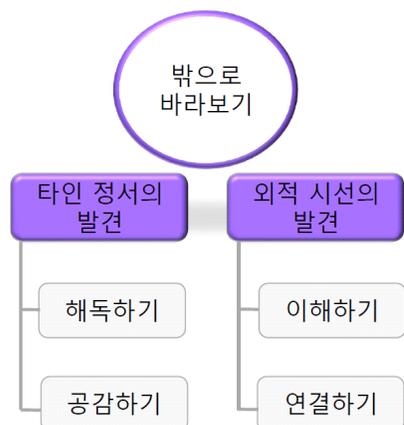
2. 밖으로 바라보기

가. 타인 정서의 발견

타인 정서의 발견이란 타인의 언어적-비언어적인 측면을 통해 그들의 욕구, 믿음, 의도 등을 직관적으로 해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는 창작작업은 사람과 사람이다. 무용 예술의 신체는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타 장르 예술과 비교해서 더더욱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민감하고 또 극대화된다.

(홍유쾌, 20210206)



〈그림 4〉 무용창작 구성요소 중 ‘밖으로 바라보기’

연주자에 있어 도구는 악기이고, 화가는 붓이며, 무용가는 바로 신체이다. 안무가 혹은 무용수는 신체를 통해 움직임 질감을 창조해내고, 고도의 테크닉을 수행하고, 타인의 신체표현을 모방하고, 내면의 정서를 대변하고,

타인의 신체와 협응하는 등 예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도로 정련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처럼 정서·지능적인 신체를 통해 타인의 정서, 의도, 상태 등을 민감하게 교감하는 특성이 있다.

(창작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발견한다... 예를 들어 누구는 눈 깜빡이는 횟수를 발견할 수도 있고, 누구는 입술의 색깔을 발견할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각도를 발견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 너머에 이 사람을 마치 작동하고 있는 제3의 상상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것처럼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 각자가 가진 것들이 다르다는 것, 서로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윤반사, 20210217)

학생들에게 있어 무용창작 활동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동료들과 움직임을 만들고 서로의 생각을 드러내는 가운데 자신과 또 다른 타인의 정서와 사고를 발견하게 된다.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로부터 학습된 내용을 적용하는 능력에 지속적으로 의존한다(Gardner, 2016). 이처럼 무용창작 교육의 도구로써 신체는 민감하게 교감하는 인식의 매체이다. 또 각기 다른 개성과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학생들의 내적 지식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다.

나. 외적 시선의 발견

외적 시선의 발견이란 무용창작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생들에게 무용창작 예술이 문화 일부분으로서 그 가치를 이해하고 그 영향 아래 성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황진정은 예술적 경험과 가치를 관객과 나누려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다.

무용창작에서 동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숙명이다. 또한, 내가 믿는 신념이 예술이고, 예술의 가치이다. 내가 예술적 경험을 통해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느끼고... 사회를 돌아볼 때,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예술적 경험을 관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관객과 나 자신의 삶이 풍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황진정/ 20210209)

예술적 가치를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예술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알아가고 수용하며 이해가 공존하는 삶을 통해 비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공감이란 ‘들어가서 느끼다’라는 의미로, 타인의 느낌, 감정, 사고 등을 헤아려 이해하고 이해된 바를 바탕으로 상대와 소통하는 능력을 말한다(최현석, 2011). 따라서 그것의 형태인 사회·문화와 소통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창작자는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작품 속에 깊이 침투하게 된다. 또한, 창작자는 무용이라는 표현체계를 통해 형태화하고 그것을 관객들에게 공유한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한 사람의 정서와 사고가 문화적 매체를 통해 공유되고, 또 우리들의 사고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공적으로 공유되고 소통되는 방식은 우리에게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무용 예술이 교육내용으로서 무용창작의 공적·제도적 차원에 내재해있는 그 가치와 의미를 배우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들은 외적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3. 안으로 탐색하기

가. 자기 신체의 발현

자기 신체의 발현이란 자신의 감각, 감정, 사상 등이 통합된 신체표현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신체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자기 인식).... 작업할 때 어떤 주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나의 사상과 신체를 통해서 표현해야 하는 게 무용수이다. 안무자가 원하는데 로만 자기 마음(사상과 정서) 없이 몸만 움직이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우정, 20210215)

보통 무용수들은 느끼는 몸보다 보여주는 몸에 익숙하고, 훈련되어 있다. 형태에 몸을 맞춰나가는... 몸을 왜곡된 이미지로 가지고 쓴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맞는 몸, 내 몸이 어떤지 알고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좋은 댄서라고 생각한다.

(황진정/ 20210209)



〈그림 5〉 무용창작 구성요소 중 ‘안으로 탐색하기’

자기 신체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창작자 이우정은 기술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 없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용창작의 특성상 무용수는 자신을 대면할 수 있을 때 그 표현은 무한대로 확장된다. 이는 자신의 지성과 감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자신만의 의미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느낌이라는 단어는 감각과 감정 모두를 포함한 의미이다(최현석, 2011). 또 오관을 통해 느끼는 감정은 항상 밖으로 나타난다. 표정, 말, 행동 등 표현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개념, 판단, 관념, 상상, 추리 등 사고를 일으킨다. 무용창작 예술은 여러 가지 지능의 정보를 알고 규합하는 지적 활동으로 학생들은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감각, 정서, 사고 간의 통합된 신체를 통해서만이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김주자, 2004).

자기 신체적인 훈련을 하면서 어떤 집중력(몰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창작에 있어서 자기 움직임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창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 세상에서 나만의 것을 하는 것인데 자기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와 인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서/ 20210225)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신이 연주하는 소리를 느끼며 마치 음악의 일부처럼 느끼듯, 무용창작에서 몰입된 상태는 의도, 개념, 상상, 연상 등 어떠한 이미지와 몸의 신체가 일체감을 형성하는 느낌이 들게 된다. 이러한 몰입은 충만한 자아의 경험, 자아실현 경향성으로 자율성을 향한 전진하는 의지에 동기를 제공하는 동력이다(최현석, 2011). 자율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스스로의 의지가 반영된 주체라

는 단어일 것이다. 자신의 표현이 내적 동기나 움직임은 원리가 자신에게 비롯되고, 또 자신이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갖게 되는 상태이다. 바로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창작자가 자신이 자율적인 존재 혹은 주체적인 존재라고 느끼는 상태이다. 소위 무용창작을 통한 자기 신체의 몰입은 자기 감각, 정서, 사고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표현했을 때 갖게 되는 확장된 자아실현이다.

나. 창작 도구의 발현

창작 도구의 발현이란 무용창작에 내재된 요소와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오타드(2017)는 안무의 원리에 대한 지식과 안무의 실재를 알려주어 이 둘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최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깊은 이해는 이론과 실제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만들고,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보고, 변형하고, 해석하는 등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기술과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단순히 직선적 방식으로 개발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활동이 그렇듯 기술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기술과 지식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과 활용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녹아 있다.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세상 속에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다. 결국,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무용창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끌어낸다.

무용창작 교육에서 하나는 무용창작의 원리... 쓸 수 있는 도구를 아는 것과 다른 하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우정, 20210215)

그때 생성되었던 그리고 느꼈던 감정이나 나만의 기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이 차를 마셔도, 나만의 어떤 기분, 어떤 향, 어떤 색깔, 이러한 것처럼 기호적인 면들이 작품에 투영이 되어서 그것이 무대의 미술이나 아니면 움직임의 색깔 등 질적인 측면에 관여하게 된다...

(이바른/ 20210224)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개념화시키고, 형식을 만들고, 질감의 방식을 찾고, 공간구성의 형식을 사용하고, 다양한 재료를 관계짓고, 무대와 관련한 조명, 의상, 음악 등 그 요소와 원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었다. 무용창작에 있어 구조화란 질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창작자가 최초로 갖게 된 동기, 작품의 의도, 미적 관점, 예술관 등 이러한 창작 내용 곳곳에 창작자의 의식적·무의식적인 정서가 침투되어 있다. 창작자의 정서에 기반한 수많은 선택이 곧 축적되어 그 내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고유한 언어를 찾기 위해선 한편에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또 다른 한편에 그 근원에 이를 지시하는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4. 밖으로 탐색하기

가. 타인 신체의 발현

타인 신체의 발현이란 타인과 만남을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작용(synergy)의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경험이 곧 교육의 매개로써 학생들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다(Dewey, 2003). 따라서 무용창작 교육에서는 체험의 가치를 강조한다. 학생들은 타인과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이로 인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심화하면서 기존의 앎을 확장해간다.

대학교 시절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동료들과 나눔이었다...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면서, 확신이 드는 순간들이 오는 것이다. 그 가치와 에너지는 무언가로 탄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상호교류 과정이 중요하다.

(윤반사/ 20210217)



〈그림 6〉 무용창작 구성요소 중 '밖으로 탐색하기'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무용창작 수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다양성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학생들에게 창작작업은 창작자처럼 사고하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통해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한다. 또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험과 탐구를 통해 그 해결 지점을 찾게 된다. 이러한 탐구의 장은 개성 넘치는 학생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협력적인 다양한 상황, 미적인 다양한 양상을 인식하고 체득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양성을 통해 방법적·인지적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학생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한 체험의 장은 공동작용(synergy)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한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된 것을 보았다. 서로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각자의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동시에 본인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는... 갈등을 조율하고, 본인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협업할 때 생각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황진정/ 20210209)

협력작업은 타인과의 관계가 만들어 낸 가치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타인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등 자신을 알아가는데 거울이 된다. 이는 다시금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작용하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심리적인 기반 위에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무용창작의 교육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학생들에게 있어 공동공유의 시간은 자신을 발견하고 관계의 가치를 알아가며 앎을 확장해간다.

나. 문화 도구의 발현

문화 도구의 발현이란 말/글, 음악, 미디어, 그림 등 문화적 표현양식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표현양식 혹은 다양한 재료는 그 특성에 따라 인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우리의 인식체계는 문화적 도구를 통해 작동하며 발전한다. 결국, 우리는 문화적 표현양식 덕분에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다(Eisner, 2007).

학생들이 장르, 몸에 간혀있지 않았으면 한다. 텍스트, 음악, 그림 등 다양하게 매체를 선택하도록 한다. 감각이라는 게 어느 영역이든지 흡수가 될 수 있고, 침범할 수 있고, 사유라는 건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한다.

(윤반사/ 20210217)

무용창작 수업에서, 너무 다재다능한 학생은 본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꼭 신체가 아니더라도 상이나 음악, 영상 등으로 표현했을 때, 내가 몰랐던 그 학생의 숨겨져 있던 창작력, 신체로만 했을 때보다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확실해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다변화되는 교육환경에서는 무용창작의 교육 방법도 다채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우정, 20210215)

각 예술은 그 한계와 가능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음악은 음정, 음색, 리듬의 요소를 통해 표현되고, 몸짓은 시간, 공간, 힘, 흐름의 요소를 통해 표현된다. 또 음악이 청각적 감각에 의존한다면, 몸짓은 운동 감각에 의존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료를 탐색하고 그 표현을 구체화할 방법을 모색한다. 무용창작의 표현은 언어, 몸짓, 음악, 사물 등 다양한 문화적 표현양식을 연결하고 변형하고 독특한 병치를 이뤄내어 구조화한다. 이러한 재료 혹은 매체는 그 자체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영감을 준다. 즉 학생들에게 시각적 이미지, 아이디어, 상상 등에 영향을 미치며 작품의 형식이나 표현방식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문화의 표현양식은 그 특성에 따라 기분, 감정, 분위기 등이 다르게 전달된다. 그것이 추상적이든 표상적이든, 우리의 정서나 감정을 다르게 불러일으키며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잘 찾는 방법보다는 먼저 무용 예술 특성이 무엇인지 100%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은 무엇이고, 미술은 무엇이고, 소설은 무엇인지 장르적인 특성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바른/ 20210224)

학습은 학생들에게 세계를 질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식은 확장해간다. 이는 예술의 맥락에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안내, 예시, 조언과 보조 등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조정된다 (Eisner, 2007). 학생들의 각기 다른 개성에 따라 흥미를 갖고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질적, 동기적 측면이 고려되었을 때 흥미를 갖고,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 내적 만족을 촉진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러한 개성이 발달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무용 창작활동에 있어 자신을 알고 자신의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하는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무용창작에서 어떠한 표현양식을 선택하는지, 그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하는지, 자신의 표현을 발견하는지 등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이 갖게 될 경험의 범위와 자신의 언어를 발견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을 기반으로 안무가 및 무용창작 교육자의 체험적 조사를 근거로 안무가의 사고, 무용창작의 특성, 교육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 내적 측면의 본질을 탐색하여 무용창작 교육의 개인적 지능은 무엇이고, 이러한 지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무용창작 교육의 구성 요소는 ‘자기인식’, ‘타인인식’, ‘인식하기’, ‘수행하기’의 네 가지 차원으로 밝혀졌다. 안으로 바라보기(자기 정서의 발견, 내적 시선의 발견), 밖으로 바라보기(타인 정서의 발견, 외적 시선의 발견), 안으로 탐색하기(자기 신체의 발현, 창작 도구의 발현), 밖으로 탐색하기(타인 신체의 발현, 문화 도구의 발현) 상위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정서의 발견(파악하기, 관찰하기), 내적 시선의 발견(생성하기, 동기화하기), 타인 정서의 발견(해독하기, 공감하기), 외적 시선의 발견(이해하기, 연결하기), 자기 신체 발현(통합하기, 확장하기), 문화 도구의 발현(포착하기, 활용하기) 하위요소로 밝혀졌다.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의 차원은 하나의 개인의 내부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타인·사회의 외부로 향하는 인식(認識) 작용을 의미한다. 또한, ‘인식하기’와 ‘수행하기’ 차원은 하나는 내·외적으로 발견(發見)하기 위한 인식의 방식이자 다른 하나는 내·외적으로 발현(發現)하기 위한 수행(遂行)의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무용창작 교육의 구성 요소는 깊은 이해에 그 중요함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어떠한 개념, 이론, 지식, 기술 등의 영역을 실재적이고 낮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학생들이 무용창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각 영역의 세부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균형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개념적 인식과 실제적 수행의 경로, 개인과 타인·문화 차원의 경로를 통해 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용창작 교육은 학생들의 인식체계를 새롭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식은 무엇을 아는 작용이다. 세상에 대한 경험과 표현 속에서 알아가고 또 기준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려는 행위이다. 재인식의 차원은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행위로 본래의 ‘얕’을 갈망하고 노력하고 발견하고 끊임없이 재조정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무용창작을 통해서 학생들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수단으로써 그것을 사용한다. 때론 내면에 귀 기울이고, 대상을 탐색하고, 미적 관점을 발견하며 때론 타인·문화와 연결 지으며 조정하고 깨달으며 다양한 층위의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각 부분의 미묘한 차이에서부터 그 특성들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인 시선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창작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내가 가진 것을 수용하며 의미를 구하려고 하는 행위에서부터 타인·문화와 소통에 기반하여 얕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차원까지를 의미한다. 이처럼 무용창작의 깊은 이해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무용창작의 내용을 깊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전되며 그것을 훈련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학생들은 인식과 수행 그리고 개인과 타인·문화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한편 우리는 예술, 언어, 그림, 숫자 등 문화적 표현양식을 통해 인식하고 다시금 표현양식을 통해 재창조한다. 한 개인의 정서·사고를 표현하는 차원에서부터 문화적 역할과 기능의 범위로까지 확장되어 작용한다. 그렇다면 표현양식은 우리 인식과 표현의 중간 매개물이다. 정서, 관념, 이미지, 사고, 지식 등을 생산하고, 반영하고, 다시금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의 중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무용창작 또는 그 교육은 한 사람의 사고의 틀이고 고유한 표현양식이며 삶의 공유방식이다.

■ 참고문헌

- 문용린(2001). 다중지능 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 김영사.
- 최의창(2011). 무용의 정신은 가르칠 수 있는가. 한국연구재단.
- 최현석(2011).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 Autard, J. M.(2017). **미드웨이 무용교육론 제2판** (최의창, 임수진, 박혜연, 홍애령, 김나이, 신주경, 김현정, 권선영, 박성혜 역). 레인보우북스. (원저출판 2002).
- Dewey, J.(2003).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언 역). 책 세상. (원저출판 1934).
- Eisner, E. W.(2007). **예술교육론** (강현석, 김혜숙, 박승배, 손민호, 이은적, 이자현, 황연주 역). 아카데미프레스. (원저출판 2002).
- Gardner, H.(2016). **지능이란 무엇인가** (김동일 역). (주)사회평론. (원저출판 2011).
- Humphrey, D.(1999). **현대 무용론** (송린 역). 현대미학사. (원저출판 1958).
- Allport, G. W. & Vernon, P. E.(1933). **Studies in expressive movement**. New York. Macmillan.
- Autard, J. M.(2004). **Dance Composition**. A Practical Guide to Creative Success in Dance Making, Taylor & Francis Group, 5th ed. New York. Routledge. 2014.
-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1980). **Dance Education and Training in Britain**. London. Calouste Gulbenkian.
- Carlson, J. G. & Hatfield, E.(1992). **Psychology of emo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Creswell, J.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California. Sage Pubns.
- Goetz. & Le Compte, M.(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Goleman, D.(1988). **The meditative mind**. New York. Tarcher. G. P. Putnam.
- Guba, E. G.(1990). The alternative paradigm dialog. In E.G. Guba(Ed.), **The paradigm dialog**. Newbury Park, CA. Sage.
- Langer, S.(1979). **Philosophy in New Ke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oustakas, C.(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van Manen, M.(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London, Ontario, Canada.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 김경희(2020). LMA에 따른 ‘기(氣)’ 흐름의 운동형식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80(4), 31-42.
- 김나이(2020a). Toward the Transdisciplinary Learning of Dance Choreography -Understanding Interactivity-. **무용예술학연구** 77(1), 63-79.
- 김주자(2004). H. Gardner의 신체적 지능이론과 21세기 무용교육의 위상과 방향. **무용예술학연구** 14(14), 73-94.
- Kim, N. Y.(2016b). Identifying choreographic knowledge. choreographic techne and phronesi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7(1), 42-59.

Nauta, W.(1971). The Problem of the Frontal Lobe. A Reinterpretation.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8.

국립국어원(2022). “표현”. 국립국어원. <<http://www.stdict.korean.go.kr>, 2022. 07. 28.>.

논문투고일 2022. 08. 05.

심사일 2022. 08. 29.

심사완료일 2022. 09. 06.

Exploring intra/interpers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Contents in Dance Composition

Park, Soon-ho* · Kim, Na-ye**

Adjunct Professor, Dept. of Danc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Danc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re-examine the education of dance composition by exploring intra/interpersonal intelligence from Howard Gardner's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and to identify the educational contents to promote expression.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approach based on the interpretative paradigm was adopted. 10 choreographers were Selected based on the 'criterion-based sampling' and data was colleted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Data was analyzed based on Moustaka's horizonatilizing process. Four dimension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to percieve' and 'to implement' were identified to cultivate expression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dance composition.

Keywords: dance education(무용 교육), dance composition(무용창작), intrapersonal intelligence(자기이해 지능), interpersonal intelligence (타인관계 지능), Howard Gardner(하워드가드너).